ofofsa





CONTENTS

04 기획특집 2022 임인년(壬寅年) 새해, 건강하십시오 08 마을가는 길 서면 갈천리 12 **양양군청 IN & 人** 허가민원실



양양군청

양양 10경

지난 12월 기존 양양 8경에 새롭게 2경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양양 서핑로드)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2경 대청봉



3경 오색령(한계령)



4경 오색주전골



5경 하조대



6경 죽도정



7경 남애항



8경 낙산사 의상대



9경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10경 양양 서핑로드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2022 임인년(壬寅年) 새해, 건강하십시오
- 8 마을가는 길 서면 갈천리
- 12 양양군청 IN & 人_ 허가민원실
-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서면 상평리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양양군의회
- 18 **향토사 이야기_** 양양지역의 황장봉산과 최근 발견된 금표의 실태를 알아본다
-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알리미_ 코로나19 백신 '3차(부스터)접종'
- 26 정보꾸러미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COVER STORY



임인년 새해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http://blog.naver.com/likeyyang

f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마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20호

| 발행일 2022년 1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동해에 붉게 솟아오르는 호랑이해 의 새 기운을 뜨겁게 맞이하셨나요?
모름지기 새해맞이는 동해 일출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한해 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안으로 몰려 오곤 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는 새해 첫날 해맞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아쉽지만 올해도 건강하고 즐겁게 맞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면, 해의 기운이 충만한 고장 양양에서 나만의 해맞이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직 제대 로 새해 해맞이를 하지 않았다면 일출의 고장 양양에서 새해맞이를 안전하게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매년 새해 첫날은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동해안에서 해 맞이를 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다. 그 누구 보다 먼저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 하며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곤 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첫날 은 아쉽게도 동해안으로 오는 발길이 묶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분위기에 맞춰 2022년 새해의 해맞이 축제를 기대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일상이 다시 묶였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새해맞이 축제는 열리지 않았고, 새해 첫날 동해신묘(東海神廟)에서 진행되는 제례 봉행은 축소하여 진행되었다.

2022년 해맞이 풍경

해돋이의 고장 양양의 해맞이 명소는 낙산해변, 설악해 변, 하조대, 동호해변, 죽도해변이 손꼽히고, 산에서의 일 출은 단연코 설악산 대청봉을 손꼽는다. 그동안 해맞이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는데, 지난 2020년 1월 1일에는 약 16만 명이 양양을 찾아 새해맞이를 했다.

하지만 2년째 새해 첫날 해맞이 축제는 취소되었고, 해변은 폐쇄되는 등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새해 해맞이는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하면 어떨까. 일출의 고장 양양에서의 새해맞이 기운을 느끼면 좋겠다.







동해안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나 일출을 맞이할 수 있지만, 양양에서의 해맞이는 더 특별하다. 양양이 동해안 중에서도 일출의 고장이라고 손꼽히는 이유는 낙산 의상대 해변에서 보는 일출이 그 어느 지역보다 장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뜻깊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양(襄陽)'은 오를 '양'(襄) 자와 볕 '양'(陽) 자를 사용하는 지명 덕분에, 고려 시대 (1260년)부터 양양의 동쪽 해안가 낙산에 '동해신'을 모시는 동해신묘를 건립하여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을 내려 국태민안,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매년 새해 아침에 동해신묘에서 제례를 올리는 것도 새해를 여는 첫 시작이자 주민과 지역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고장이니 해맞이 명소로 손색이 없고 의미가 크다.

또 동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설악산 대청봉에서의 일출도 손꼽히는데,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 대청봉에서 보는 일출은 장엄하고 웅대하기 때문이다. 매년 새해맞이를 위해 산행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특별 한 해맞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도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지난 연말은 악화된 상황으로 더욱 조심스러웠다. 11월 1 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신규 확진자와 위 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12월은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 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 연말, 연시의 들뜬 마음을 조금씩 늦추고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과 만나며, 여행을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해는 밝았고, 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해넘이 명소를 소개합니다

동해안에는 매년 새해 첫날이면 해맞이 명소로 손꼽히는 정동진 · 경포 · 속초 · 낙산 · 망상 등에서 사람들이 해 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서서 해맞이를 하는 풍경이 있었 다. 영하권의 추위에도 해맞이 명소에는 많은 인파가 몰 려 새해 각오를 다졌다. 또한 다채로운 행사도 열려 새해 를 맞이하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해맞이를 하기 전 해넘이의 매력도 만나면 좋다. 이름다운 조명이 빚어내는 야경은 꼭 챙겨보이야 할 양양 여행지 버 킷리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그 중 낙산대교의 야경이 있다. 낙산대교는 해 질 무렵 석양과 노을이 빚어내는 모습이 장관이다. 또 양양의 밤하늘은 청정하고 깨끗해 캠핑장에서 은은한 조명과 감성적인 분위기, 양양의 밤하늘이 빚어내는 밤풍경은 최고의 추억이 되기 충분하다.

가장 추천하는 곳은 낙산사의 홍련암이다. 의상대에서 시 원하게 바라보이는 밤바다와 어둠이 짙어올 무렵의 홍련 암에 켜지는 불빛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암자의 밤 풍경이다.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서면 갈천리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산촌휴양마을 자연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준비하는 시간 겨울은 '잠시 멈춤'의 계절. 봄부터 가을까지 생명력 넘치던 대지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며 잠들어 있다. 누군가 그랬다. 겨울 풍경이 스산해 보여도 땅속은 활력으로 넘친다고, 겨 우내 언 땅 아래에서는 칡뿌리가 열심히 양분을 모으고 있 다고 말이다.

마을 이름에 '칡'을 품은 갈천리(葛川里)도 첩첩산중 오지마을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산촌휴양마을로 뿌리 내리기위해 긴 겨울을 힘껏 통과하고 있다.



화전민의 터전에서 국민 힐링 명소로

설악산과 오대산 사이를 지나는 구룡령 자락에 자리를 잡은 갈천리는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만큼 온통 산 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다.

56번 국도를 따라 갈천리의 중심부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도 눈에 보이는 건 산과 하늘, 그리고 간간이 눈에 띄는 계곡뿐이 다. 하지만 꾸밈없이 솔직한 대자연의 풍광이 번잡하고 시끄러 운 마음을 안온하게 다독인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힐링 하 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마을답게 고요하고 아늑한 느낌이다.

지금은 천혜의 휴양지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지만, 갈천리는 오래전 화전민들이 터를 잡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곳이다. 엄주현 이장(53세)은 어릴 적에 산을 일구어 농사를 짓던 어른들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오직 자연을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던 옛 시절에는 춘궁기를 잘 넘기는 것

이 큰일 중 하나였다. 갈천리 사람들은 칡을 캐 먹으며 배고 픔을 달랬다. 주민들이 칡뿌리를 씻던 개울에서는 늘 칡 냄새 가 났고, 물빛도 칡 색깔을 띠었다고 해서 갈천리(葛川里), 우 리말로 치래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백두대간의 한 자락에 기대어 있는 마을이다 보니 칡뿐만 아 니라 산나물과 버섯 등이 풍부했고, 주민들은 농사 외에도 임산물 채취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화전민이 일군 받은 울창한 숲이 되었고, 다 른 곳보다 겨울이 긴 탓에 농사로 소득을 거두는 데도 한계 가 있어 농가는 줄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구룡령을 비롯해 갈천약수 등 매력적인 자연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객들을 대상으로 야영장과 펜션,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 을 도모하고 있다.





갈천리에서 찾은 일곱 개의 보물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갈천리에는 갈천계곡을 따라 일곱 가지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아홉 마리의 용이 고개를 넘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구룡령, 최 근에 겨울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갈천약수, 송어 가 올라오다가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한다는 송어직소, 기와 집처럼 으리으리한 제집바위, 굽이굽이 수려한 능선을 뽐내는 삼석봉, 마을의 상징인 금강송,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 는 성황당은 갈천 7보라고 불리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특히 구룡령에 대한 갈천리 주민들의 애정은 남다르다. 양양과 홍천을 연결하는 구룡령 옛길은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상품 교역로이자, 양양과 고성 등 지방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 과거급제를 기원하며 넘나들던 길이며, 일제 강점기 철광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의 옛길들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전되어 있어 2007년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9호로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름을 알렸다.



구룡령 옛길이 문화재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갈천 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전충조 노인회 장(82세)은 구룡령 옛길 복원에 앞장섰던 주민 중 한 명이다.

"구룡령 옛길은 영동과 영서를 이어온 역사를 가진 길이었는데, 새로운 도로가 생기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죠. 지금 이장님의 부친(故 엄익환)께서 옛길에 대한 답사를 제안했고, 몇몇 주민들이 역사적 가치를 가진 이 길을 다시되살려보자고 해서 구룡령옛길개발위원회가 형성되면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지답시와 고증을 통해 유서 깊은 옛길을 복 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모두의 기 억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옛길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등산 인구 천만 시대에 구룡령 옛길 은 등산객의 성지가 되었다. 많은 사람의 발길이 닿는 명소 이니만큼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지만, 갈천리 주민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켜나간다 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환경 정화와 관리에 힘쓰고 있다.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

갈천리는 때 묻지 않은 산촌 특유의 소박한 정서, 청정한 자연환경 등 휴식과 힐링을 갈망하는 도시민들의 로망을 충족시킬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현재 갈천리에는 72가구 132명(2021, 11월 기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60%이상이 노년층인 고령화 마을이지만, 매년 귀촌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이 풍부한데도 이것이 마을 소득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길어 농한기의 소득 보장이 어려운 마을의 한계를 극복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꾀하기 위해 엄주현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0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녹색농촌 마을 등에 선정되면서 도농 교류 중심 산촌휴양마을을 꿈꿨고, 치래마을 산나물축제 · 구룡령옛길 · 폐교된 갈천분교를 활용한산촌체험학교 등 지역자원을 특성화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을 사업에제동이 걸렸고,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산촌체험학교까지 철거했다. 현재는 오토캠핑장과 펜션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엄주현 이장은 마을 내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대해 여전히 고민한다.



"그동안 마을이 크고 작은 시련과 갈등을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전충조 노인회장님이 중재 역할을 잘해주신 덕분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넘어올 수 있었죠. 앞으로 주민 간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실현할 생각입니다."

전충조 노인회장은 어떤 조직이는 갈등은 당연히 존재하며,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마을의 일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난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갈천리는 지금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더 멀리 뛰기 위해 몸을 한껏 웅크리는 개구리처럼, 갈천리는 지금 이 시기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로 채워갈 것이다.

(글·사진: 편집부)

허가민원실

민원업무, 새해에도 속 시원하게!!



부서 : 허가민원실 규모 : 9팀 37명

업무: 민원행정, 건축, 주택, 농지개발행위, 산지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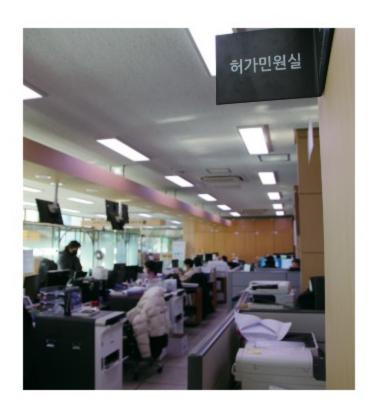
지적,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공공건축

행정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장 답답한 일은 해당 민원을 어느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각각 다른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을 떠올리면, 벌써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군민들의 민원을 한 자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허가민원실이 있기 때문이다.



신속 해결 원스톱 행정서비스

허가민원실은 민원인이 가장 가까이 드나들 수 있는 군청 1 층에 자리하고 있다. 9팀 37명의 규모로 구성되어 민원 행정 서비스를 비롯해 건축 · 주택 관련 인허가 처리, 농지 · 산지 관리, 지적 서비스, 공공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90%를 허가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접수된 민원만 해도 79,523건(2021. 12, 13, 기준)이다. 특히, 행정업무의 특성상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허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복잡한 민원이라도 각각 다른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허가민원실 내에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어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변화

낙산도립공원 해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우리군의 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고스란히 허가민원실 업무에서 나타난다. 생활형 숙박시설 등 민간사업 및 대형건물 신축 등에 관련한 인허가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축 허가만 30%기량 증가했으며, 20층 이하였던 규모 또한 49층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낙산 지역은 현재에도 고층 건물만 30건 가까이 허가 업무를 진행 중이며, 차후에도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중간에서 해결하는 것 역시 허가민원실이 하는 일이다.

각종 인허가 관련한 상담과 민원수요가 증가하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로 나눠져 있던 건축업무를 개편해 지난해부터 는 허가민원실로 일원화하였다. 최근 귀촌, 생활형 여행 등 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주택과 관련한 건축신고도 늘 어났다. 우리군의 인구 증가세와 맞물려 이주민들이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낙산지역 신축 건물 예정도

군민을 만족시킨다는 사명감

허가민원실의 지적 분야 업무는 지적도 관리부터 공시지가 조사, 개발 부담금 산정까지 부동산과 관련한 처음과 마지 막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건축 분야 민원은 상대적으 로 적지만, 군민이 요구하는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 는 허가민원실의 업무다. 곧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 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 육아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녹색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식물원이 설계에 들어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3개의 소규모 미팅룸을 설치하는 등 안심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허가민 원실의 업무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군 민을 만족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인허가 미팅룸



민원상담 중

"답답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희망으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도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서면 상평리



960년



2020년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 정현종〉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양양군의회



2022년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곁에서 소통하며 군민지향의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지나가 고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 다. 지난 한 해 동안 양양군의회에 아 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으로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와 진정한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건 분명 힘든 시절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오 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군민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주시는 만큼 우 리 삶에도 온기 가득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여정이 힘들고 노곤하지만은 않도록 양양군의회가 여러분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양군의회가 올바른 민생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더욱 힘차게 순항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 2022년에도 우리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바라보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 행기관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더 나은 양양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자 치분권 새 시대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기 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지만 굳건히 버 티고 이겨내어,새해에는 좋은 소식들과 행운만이 우리 곁 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새해, 양양군의회 의장 김 의 성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운영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개 안건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2월 2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 조례안 4건 및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15건 등 총2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1,01% 증가한 4,103억원 규모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편 성되었다. 의회는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향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과 관련하여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14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

강원의정봉사상 수상



양양군의회 고제철, 김귀선 의원에게 지방 의회 30년을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강원의정봉사상이 수여되었다. 고제철, 김귀선 의원은 평소 지역 발전과 주 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신뢰받는 의

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제철 의원은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귀선 의원은 "소소한 부분일지라도 소 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군민의 든든 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양양지역의 황장봉산과 최근 발견된 금표의 실태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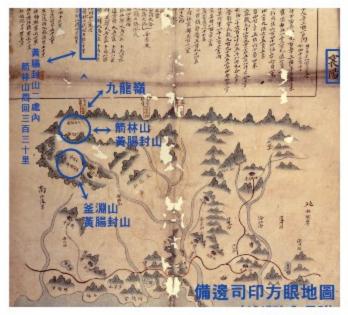
황장봉산(黃腸封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保護)되어 왔는가?

황장목(黃陽木)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령(禁令)이 내린 산을 황장봉산(黃陽封山) 또는 황장금산(黃陽禁山)이라고 한다.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4권 총론에 황장(黃陽) 주(註)에 보면 황장이란 황장목의 준말이라 하였는데, 황장목은 소나무의 속고갱이가 황색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실에서 주로 관곽재(棺槨材:왕족이 사망하였을 때 관을만드는데 사용하는 목재)와 궁궐 건축에 쓰일 목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벌목과 개간을 일체 금하는 곳이다.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형전 금제조(刑典禁制條)에 의하면 "봉산(封山)의 큰 소나무를 10주 이상 벤 자는 효시 (梟示)하고 10주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정배(減死定配)한다." 고 했으며 "황장봉산의 소나무 1주를 벤 자는 논하여 무겁 게 다스렸다.

수교(受敎)에 의하면 곤장 일백에 3년 복역에 처하였다."하 니 황장금표의 입표에는 범법(犯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 계의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황장목의 남획 에 대해서는 국법으로 지나칠 정도로 엄히 다스렸는데 그 이유는 황장목의 중요성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변사인방안지도의 양양 황장봉산 2처는 '부연산봉산'과 '전림동봉산'이다.

조선시대 군국사무를 관장하던 비변사에서 만든 양양부의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 표기되어있는 현 북면 법수치리 일원의 부연산 황장봉산과, 서면 갈천리 일 원의 전림동 황장봉산을 표기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변사인방안지도

이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산을 금지하는 암각 금표 가 현북면 장리 1개소와 원일전리 1개소, 어성전 1개소, 법 수치리 용화사입구에 1개소가 발견되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하여 유실되고 마을 개발사업과정에서 모두 훼손되거나 매몰되어 지금은 형체를 찾을 수가 없다.

반면, 서면 갈천리 일원의 전림동 황장봉산은 양양부 관아 로부터 10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가 330리이다. 동쪽으로는 영덕에 이르기까지 70리, 서쪽으로는 춘천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까지 70리라 고 기록되어 있다.

최근에 새로 발견된 금표(禁標)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6월 8일 양양군 현남면 잰골(상월천리 297번지)에서 발견된 금표는 수해복구 공사 중 토지소유자인 오봉현(남.



양양관내 금표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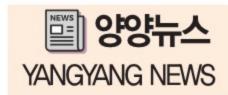
57세)이 '禁標'라 쓰인 바위를 발견하고 양양군에 신고하면 서 양양문화원으로 알려지게 되자 향토사연구원들은 한국 학중앙연구원 신종원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박봉우 명예교 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김도현 박사 등 암각문 전문 가를 대동하고 금표가 발견된 공사현장에 도착 암각을 답

양양, 전림, 황장봉산, 금표

사한 전문기들은 "양양군의 두 곳 봉산 가운데 하나인 부연 산(釜淵山) 황장봉산의 금표로 추정 된다"라고 말했다.

그 후 동년 10월 25일 강원대학교 박봉우 명예교수로부터 현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43번지에서 금표가 발견되어 홍천군 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는 제보를 접했다. 양양향토사연구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동년 11월 5일 홍천군박물관을 직접 방문했는데, 암각 문의 내용은 "襄陽, 箭林, 黃陽山, 南界百里, 周回三百, 三十里(양양, 전림, 황장산, 남계백리, 주회삼백, 삼십리)"라 각자 되어 전림 황장봉산의 금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암각 문에 양양이란 지명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미 각자 된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인식되며, 1973년 이전은 명개리가 양양의 행정 관할 구역이며, 이 지역이 전림동 황장봉산 구역에 포함되어 비교적 각자 내용이 훼손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아쉽다면 금표 각자 바위가 홍천군 박물관에 안치(安置)될 것이 아니라 역사 현장인 명개리 산 43번지에 원형보전 되어야 했었다.





양양 휴휴암 소장 전적류(典籍類) 강원도 문화재 지정

현남면 광진리에 위치한 사찰인 휴휴암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동빈흥록(關東 賓興錄)」등 전적 4점이 12월 17일자로 강원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됐다.

'관동빈흥록'은 조선시대 강원도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시험의 전말과 급제한 과문을 수록한 목활자본으로, 규장각에서 편집하여 1794년 강원감영 에서 간행됐다. 이는 18세기 말 정조의 지방인재 등용 정책과 강원도 유생들 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사의 중요한 사료(史料)로 평가되어 강원도 유 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흔하지 않은 밀교계통의 개설서이면서 한글 연구의 자료 적 가치를 인정받은 「개간비밀교(開刊秘密教)」와 조선시대 불교경전의 간행 등을 엿볼 수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조선시대 목 판 판각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등 3점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무산복지재단, 양양지역 청소년 63명에게 '꿈드림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무산복지재단(대표 이사 수미스님)이 12월 17일, 관내 청소년 63명에 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1년, 13번째를 맞는 무산복지재단의 '꿈드림 장학사업'은 저소득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 정 등 취약계층과 학업우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 학금을 지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지원하 고 있다



2021년에는 관내 초등학생 24명, 중학생 18명, 고

등학생 21명 등 모두 63명에게 3,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무산복지재단은 지난 2009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양지역 초·중·고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0년까지 12년 동안 총 4억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설악산그린푸드, 강원도 수출의 날 '백만불 수출탑' 수상

양양군 제2그린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설악산그린푸드(대표 함승우)가 백 만불 수출액을 달성하여 '백만불 수출탑'을 받았다. (주)설악산그린푸드는 양 양지역에서 30년 이상 버섯 · 산나물류 재배 및 판매업을 해오다 2014년 9월 1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양양읍 포월리 제2그린농공단지에 입주한 향 토기업이다.

주로 양양군에서 재배된 청정 건나물과 버섯을 이용하여 깨끗한 위생시설에서 소포장한 가공제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섭취가 가능한 '즉석 곤드레 된장국'과 물에 30초 불려 바로 요리할 수 있는 즉석 곤드레, 취나물, 시래기 동결건조 나물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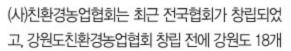
특히 2021년에는 양양 찰옥수수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옥수수 상품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양양뉴스 텔 YANGYANG NEWS



사단법인 양양군 친환경농업협회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양양군친환경농업협회 창립총회가 12월 3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양양군친환경농업협회는 양양군친환경연구회(회장 이경수), 친환경농산물 양양출하회(대표정종원), 양양친환경 퇴비사업단(대표 이종남)등양당군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양양군친환경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창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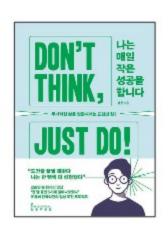




시 · 군 중 처음으로 양양군친환경농업협회가 창립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경수 회장은 "향후 정식 협회 등록과 더불어 양양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행정 및 농협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최상품의 농산물이 소 비자에게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월 책이야기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 | 윤준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21, 12월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에는 지난 4년간 한국타 잔이 시도한 23개의 도전이 담겨 있다. 그의 도전은 대단 하지 않다. 모두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 나씩 끝내며 작은 성취감을 쌓아온 그는 "여러 번의 작은 성공이 모이면 언젠가는 큰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모든 성공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라는 말도 덧붙인다. 지금도 여전 히 쉬지 않고 도전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작지만 큰 도전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 한 구절

유독 힘들었던 이번 도전을 끝내며 문득 내가 하는 이런 작은 도전들이 마치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 이 들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도전 을 마주하고 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인생이라 는 큰 도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나아간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잘못된 길로 가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는 잘될 것이다. 이번의 경험이 인생이라는 80년짜리 도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판 것만은 분명하다. (5주만에 복근만들기) 중에서

긴긴밤 | 루리 지음 | 문학동네 | 2021, 12월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코뿔소가 된다면, 소중한 이를 다 잃고도 '마지막 하나 남은 존재'의 무게를 온 영혼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어떠할까?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어린 생명이 마땅히 있어야 할 안전한 곳을 찾아 주기 위해 본 적도 없는 바다를 향해 가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 책은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가 된 흰바위코뿔소 노 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는 긴긴 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엉망인 발로도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은, 잠이 오지 않는 길고 컴컴한 밤을 기어이 밝힌 것은, "더러운 웅덩이에도 뜨는 별" 같은 의지이고, 사랑이고, 연대이다.

수단에게서 시작된 이야기 〈긴긴밤〉은 "압도적인 감동의 힘"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엄숙함" "멸종되어 가는 코뿔소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펭귄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 낸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5번 레인〉과 함께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확인해 주세요.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코로나19 백신 '3차(부스터)접종'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9월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3차(부스터)접종! 이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추가접종이 아닌 '3차(부스터)접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3차(부스터)접종이 18세 이상 전국민 접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잔여백신 등 희망지는 3차접종 1개월 앞당겨 조기접종 기능

그렇다면 3차(부스터)접종, 왜 필요할까요? 건강한 일반인들도 꼭 맞아야 할까요?



3차(부스터)접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접종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건강한 성인에게서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은 모든 접종군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백신의 능력(중화능)을 분석했을 때, 표준 바이러스와 비교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군에서 백신의 능력이 2~4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접종 완료 후 화이자 접종군은 2차접종 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및 교차접종군은 2차접종 후 3개월 시점에도 항체가가 일정수준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차(부스터)접종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입니다.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백신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최근에는 우선 접종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 중에서 고령층이 비율이 높아지 면서 중증사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효과의 감소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 등 2차접종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차(부스터)접종'입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当る対域と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3차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접종 대상자: 18세 이상 전국민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디모테오 꿈마을요양원	2명	요양보호사	3교대근무	월192만원이상 (협의)
	1명	간호조무사	09:00~18:00 (주5일)	월192만원이상 (협의)
농업회시법인(주) 홀썸네이쳐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푸른하늘환경(주)	1명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이상 (협의)
	1명	기계시설 유지보수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이상 (협의)
	1명	전기시설 유지보수원	09:00~18:00 (주5일)	연2,600만원 이상 (협의)
정동산업개발(주)	2명	토목시공기술자 (자격증소지자 우대)	08:00~17:00 (주5일)	월300만원이상 (협의
광운통신(주)	1명	방송.통신인터넷케이블 설치,수리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협의)
양양수산	1명	경리시무원	08:00~17:00 (주5일)	월250만원이상 (협의)
코레일관광개발(주) 낙산연수원	3명	환경미화원 (계약직)	09:00~18:00 (주5일)	시급 8,720원
주식회사 윤진	1명	매장계산원	시간협의 (1일3~4시간)	시급 9,500원
진양신업	1명	제조단순종사원 (코다리)	08:00~17:00 (주6일)	월230만원
오색한과	1명	한과생산 및 운전원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
일양종합금속(주)	11명	경리사무원 (경력자)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이상 (협의)
㈜골든에스앤씨 (설해원)	5명	뭄메이드	08:30~17:30 (주5일)	월216만원
	3명	조리사	교대근무	월255만원
제이에이치글로벌 (센텀마크호텔)	3명	프론트시무원	교대근무	월190만원이상 (협의)
	2명	조리사	05:30~13:30 (주6일)	월200만원이상 (협의)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입사생 1차 모집

ㅁ 선발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2년 이상)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재학생

선발인원: 40명(1차 36명, 2차 4명)

차수	대상	인원	
1차	신입생 및 재학생	다산관(남) 및 예지원(여): 18명(남 9, 여 9)국제생활관: 18명(남 9, 여 9)	
2차	정시모집 신입생	다산관(남) 및 예지원(여): 2명(남 1, 여 1)국제생활관: 2명(남 1, 여 1)	

□ 신청기간: (토・일・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가) 1차 신청 기한(총 모집인원의 90%): 공고시부터 2022.1.11(화요일)까지
 나) 2차 신청 기한(총 모집인원 10%): 2차 공고시부터 2022.2.10(목요일)까지

ㅁ 문의사항

- 양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부서 (☎033-670-2453)

-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033-250-8073)

2022년 벼 재배용 영농자재(못자리상토, 방제농약, 제초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사업비: 811,573천원 (도비 31,878, 군비 779,695)

신청기간: 2021, 12, 20, ~ 2022, 1, 21,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산업개발)

신청내용: 못자리상토, 방제농약, 제초제 농가별 소요량 신청·접수

- 지원기준(1,000㎡) : 못자리상토 3,5포/40 l , 방제농약 12,500원,

제초제 20,000원

모의사항: 양양군청 농업기술센터 (☎033-670-2437)

2022년 친환경 농자재 및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 신청접수

ㅁ 사 업 비 : 215,000천원

(도비 2,250, 군비 165,250, 농협 30,000, 자부담 17,500)

신청기간: 2021, 12, 20. ~ 2022, 1, 21.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산업개발)

□ 신청내용 : 친환경 농자재, 수용성 규산 농가별 소요량 신청 · 접수
 □ 지원기준(1,000㎡) : 친환경 농자재 20,000원, 수용성 규산 3,000원

□ 문의사항: 양양군청 농업기술센터 (☎033-670-2437)

정보꾸러미

국가유공자 수당(보훈명예·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신규 신청 안내

ㅁ 시 행 일 : 2022년 1월부터

□ 지원금액: 기존 매월 10만원 →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기존 20만원 → 40만원)

지급시기: 매월 15일 ※2022년 1월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미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수시)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래 기준 해당자

ㅁ 지급기준

-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 자 본인,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자
-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 된 5,18민주유공자
- ④ 위의 ①~③까지 해당하는 자(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외)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 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신청방법: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비 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 자동 지급

□ 문의사항: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033-670-2164)

새단장 마친 양양군청소년수련관으로 놀러오세요!

양양군청소년수련관 1층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라 북카페 이용 가능합니다. 양양군청소년수련관 (☎033-670-2930)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우미"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ㅁ 대출대상

- · 신청인이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 외 다른 목적물에 대해 주택담보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생애최초, 신혼, 2자녀이상은 7천만원 이하)
- · 부부합산 순자산기액이 일정수준('21년 기준 3,94억원, 통계청 가계금 융복지조사상 소득4분위가구의 순자산 평균) 이하

ㅁ 대상주택

- · 5억원 이하 주택
-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구입용도)

ㅁ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이내
 (2억원 한도, 다만 신혼2.2억원, 2자녀이상 2.6억원 한도)

〈금리안내〉

('21년 12월 1일 기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25%		
2~4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0%		
4~7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ㅁ 기타비용

-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대출원금에 대해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3년이 지나면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 부대비용 : 인지세의 50% 등
- ※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 청인의 소득,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상품약관, 상품설명서 및 공사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거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ㅁ 문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통부지사

(☎033-660-4711~4714) / (☎콜센터 1688-8114)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C)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❸ 이런 분들 더욱 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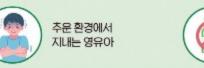
저체온증 위험군



음식이나보온 (옷,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동상 위험군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한램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따뜻한 장소로 이동 하세요.



젖은 옷을 모두 제거 하세요.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등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